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Athletes toward Human Rights Violations in Korea*

Yeon Taek KWON**, Ki Hyun KWON***, Won Jae SEO****

Received: June 04, 2021 Revised: June 14, 2021 Accepted: June 17, 2021

Abstract

Purpose: A new form of sports human rights platform is needed for policy-related officials, athletes, leaders, and parents to easily share information on sports human rights and to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the sports community and the outsid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Participants were collected from athletes (n=3,007) who were registered in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he survey items measuring their experiences of human right violations in sport.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analyze data. **Results:** The platform should include information on prevention and safe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sports activities,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porting damage, countermeasures, leader education programs, human rights protection guidelines, roles and supervision of sport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related statues. It can form a community as well as exchang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space through the operation of bulletin boards by professional athletes, student athletes, parents, and leaders, and plays a role in crisis counseling or information provision. Given the reality that players can be blocked from the outside world, information communication channels on SNS can be a useful means of protecting and improving players' human rights.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foundation for creating related platforms so that sports human rights sites or SNS can be operated voluntaril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Human Rights Violations, Athletes in the Business Team, Recognition, Resolution

JEL Classification Code: L83, D52, M31

1. 서론

지난 10 년간 정부와 체육계는 운동선수의 인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3 년 동안 쇼트트랙 지도자의 선수 성폭력 사건, 스케이트 선수의 후배 폭력 사건, 역도 선수의 후배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며 선수인권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선수 인권침해의 형태가 지도자나 선배들에 의한 폭력과 성폭력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금품 갈취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Nam, Hong, Marshall & Hong, 2018; Nam, Love & Lim, 2017).

최근 트라이애슬론 (철인 3 종) 종목의 한 실업팀 선수가 감독과 동료 선수 등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21.

**First Author, Ph.D, Department of Industrial Sports, Hongik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Knight-yt@hongik.ac.kr

***Second-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port Convergence,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wonjaeseo@eulji.ac.kr

비극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해 선수는 사망 4 개월 전부터 대한철인 3 종합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피해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정부와 체육계는 선수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2007 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2010 년에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선수들의 인권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0 년 당시 문화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체육계의 인권과 비리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2020 년에는 이들 단체를 통합하여 선수 인권보호 및 체육계의 비리 척결을 위한 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하였다.

선수의 인권문제는 체육계의 승리지상주의 혹은 승자 독식구조에 기인한다. 많은 선수들이 운동에 입문하고 전문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폭력이나 체벌,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당사자인 운동선수는 물론 부모들까지도 운동을 통해 성공하려면 구조적인 모순을 감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당장의 진학이나 취업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Hong & Yu, 2007; Hur, 2010; Nam et al., 2018; Nam et al., 2017).

스포츠인권은 스포츠계의 승자 독식구조, 지도자의 과도한 권한, 위계를 강조하는 문화가 유지되는 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체육계의 문화와 특성을 바꾸기 위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개입과 전략이 요구된다. 인권과 비리문제에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Nam, Lee, Yeo, & Park, 2007; Nam et al., 2018; Nam et al., 2017).

체육계의 인권문제는 한 개인의 실수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체육의 문화와 구조적인 한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체육계의 반인권적 문화와 관행을 바꾸어야만 하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문제 중심 접근' 이 아니라 '해결 중심 접근'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혁신이 요구된다 (Nam et al., 2017).

이러한 고질적인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인식변화와 선수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체육회 등록 실업팀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선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고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20 년 8 월 3 일부터 동년 동월 28 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대한체육회 등록 실업선수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익명조사)를 하였다. 표본 추출은 실업팀 등록 선수 리스트 전수 조사를 하였으며, 총 9,409 명 중 응답률이 32.0%로 총 3,007 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Total		Cases	Frequencies(n)	Percentage
		3,007	3,007	100.0%
Gender	Male	1,551	1,551	51.6%
	female	1,456	1,456	48.4%
Affiliation	Local government	1,565	1,565	52.0%
	Branch associations of KOC	886	886	29.5%
	Athletic associations	145	145	4.8%
	Public organizations	134	134	4.5%
	Corporations	277	277	9.2%
Career	National team of Olympic	167	167	5.6%
	National team of Asian Game	356	356	11.8%
	National team of other competitions	414	414	13.8%
	Local government team	1,861	1,861	61.9%

Years	Others	209	209	7.0%
	Below 1 year	518	518	17.2%
	1~3 year	718	718	23.9%
	3~5 year	491	491	16.3%
	5~10 year	658	658	21.9%
	Beyond 10 year	622	622	20.7%

2.2.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운동종목, 소속, 운동수준, 지역, 운동기간, 연봉이었으며, 실질적인 실업팀 인권침해 인식 및 해결방안 관련해서 인권침해 관련 인식, 개선되지 않는 이유, 인권침해 해결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instrument

Constructs	Items	Number of items
Demographics	Gender	1
	Sporting activity	2
	Affiliation	3
	Career	4
	Years	6
	Income	7
Recognition of human right violation and thoughts	Thoughts of human right violations	8-1 ~ 8-5
	Reasons	9
	Resolutions	10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4.0 v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식도 등의 리커트 척도 (5 점)는 항목별 응답비율과 5 점 평균값을 함께 도출- 리커트 척도와 단일응답인 경우 인구통계특성별 유의성 검증진행 (t-test, ANOVA 분석)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p 값을 기준으로, 95% 신뢰구간, 99% 신뢰구간, 99.9% 신뢰구간에 따라 *표시 (참고: *** p<0.001, ** p<0.01, * p<0.05)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권에 대한 인식

3.1.1. 폭력은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

전체 응답자의 89.7%가 폭력은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항목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인 경우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른 문항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폭력에 대한 인식은 남자선수 (87.8%)보다 여자선수 (91.8%)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목유형) 폭력이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점수형이 93.3%로 가장 높고, 영역형이 91.4%, 네트형이 89.6%, 수상 및 동계형이 88.7%, 대련형이 88.4%, 계측형이 8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유형별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형별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trength of violence for enhancing performance among sporting types

Total		N	Mean	t-value
		3,007	4.53	
Gender	Male	1,551	4.49	t=2.746 p=0.006**
	Female	1,456	4.57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4.50	F=1.888 p=0.094
	Measuring centered	586	4.54	
	Scoring centered	493	4.62	
	Net sport	479	4.50	

Regional sport	337	4.51
Water & winter sport	416	4.50

3.1.2. 인권침해 사례는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 감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5%는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보통응답도 31.4%로 나타나 인식의 변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인권침해 사례 감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자선수 (39.4%)보다 남자 선수 (56.9%)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목유형) 인권침해 사례가 감소되고 있다는 인식은 대련형이 5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네트형이 49.7%, 영역형이 49.2%, 수상 및 동계형이 47.8%, 점수형이 45.9%, 계측형이 4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유형별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수준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형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decrease of violence among sporting types

	Total	N	Mean	t-value
		3,007	3.34	
Gender	Male	1,551	3.51	t=8.989
	Female	1,456	3.15	p=0.000***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3.44	F=2.621 p=0.023*
	Measuring centered	586	3.25	
	Scoring centered	493	3.26	
	Net sport	479	3.35	
	Regional sport	337	3.36	
	Water & winter sport	416	3.33	

Notes *p<0.05, **p<0.01, ***p<0.001

3.1.3. 운동선수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다.

운동선수의 인권 존중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1%는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나, 부정적 응답도 22.8%로 나타났다.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보통응답이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운동선수 인권 존중 및 보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자선수 (29.9%)보다 남자선수 (43.9%)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목유형) 운동선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은 네트형이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상 및 동계형과 대련형 37.9%, 점수형 36.5%, 영역형 35.0%, 계측형 3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유형별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형별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Table 5.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 "The human rights of athletes are respected".

	N	Mean	t-value	
Total	3,007	3.16		
Gender	Male	1,551	3.30	
	Female	1,456	3.00	t=8.083 p=0.000***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3.19	F=0.881 p=0.493
	Measuring centered	586	3.16	
	Scoring centered	493	3.11	
	Net sport	479	3.21	
	Regional sport	337	3.09	
	Water & winter sport	416	3.16	

Notes *p<0.05, **p<0.01, ***p<0.001

3.1.4. 운동선수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

운동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인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2%만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42.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보통응답도 38.6%로 나타나 현재의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자선수 (15.1%)보다 남자선수 (23.2%)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목유형)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반에 대한 인식은 대련형이 2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네트형이 21.1%, 계측형이 18.6%, 점수형이

18.1%, 영역형이 17.8%, 수상 및 동계형이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유형별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형별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Table 6.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 "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athletes' human rights is sufficient."

Total		N	Mean	t-value
		3,007	2.68	
Gender	Male	1,551	2.77	t=4.941 p=0.000***
	Female	1,456	2.58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2.73	F=1.425 p=0.212
	Measuring centered	586	2.63	
	Scoring centered	493	2.62	
	Net sport	479	2.75	
	Regional sport	337	2.68	
	Water & winter sport	416	2.63	

Notes *p<.05, **p<.01, ***p<.001

3.1.5. 인권 관련 교육은 충분히 받고 있다.

인권 관련 충분한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8%는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24.7%로 나타났다. 대체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보통응답도 36.4%로 교육의 확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인권 관련 충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은 여자선수 (34.8%)보다 남자선수 (42.6%)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목유형) 인권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네트형이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역형이 40.7%, 수상 및 동계형이 39.7%, 점수형이 39.0%, 대련형이 38.6%, 계측형이 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유형별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형별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Table 7.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 " Human rights education is well received."

Total		N	Mean	t-value
		3,007	3.16	
Gender	Male	1,551	3.25	t=4.218 p=0.000***
	Female	1,456	3.07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3.16	F=1.055 p=0.384
	Measuring centered	586	3.11	
	Scoring centered	493	3.16	
	Net sport	479	3.23	
	Regional sport	337	3.10	
	Water & winter sport	416	3.23	

Notes *p<.05, **p<.01, ***p<.001

3.2. 인권문제 개선이 안되는 이유

인권문제 개선이 안되는 이유로 개인의 인권보다 성적, 실적이 강조되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5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계질서와 분위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33.4%, 인맥이나 소문 등으로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라는 인식이 31.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녀 모두 비슷한 응답분포를 보였으나, 여자선수의 경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와 소문 등으로 향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우려가 남자선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선수는 팀 이탈 시 진로의 불투명 때문이라는 인식이 더 높았다. (종목유형) 성적이나 실적이 강조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계측형이 5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상 및 동계형이 57.9%, 영역형이 56.7%, 네트형이 56.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권위적으로 위계적인 분위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수상 및 동계형이 36.1%로 가장 높고, 네트형 35.1%, 영역형 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문 등으로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라는 인식은 점수형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8 and 9).

Table 8. Why human rights issues cannot be improved.

Total	N	Results centered culture	Vague future career	Rank order centered culture	Influence of networks	Lack of public arguments
	3,007	1,684	836	1004	956	255

			(56.0)	(27.8)	(33.4)	(31.8)	(8.5)
Gender	Male	1,551	865 (55.8)	497 (32.0)	489 (31.5)	446 (28.8)	140 (9.0)
	Female	1,456	819 (56.3)	339 (23.3)	515 (35.4)	510 (35.0)	115 (7.9)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380 (54.6)	215 (30.9)	228 (32.8)	209 (30.0)	69 (9.9)
	Measuring centered	586	342 (58.4)	140 (23.9)	189 (32.3)	194 (33.1)	37 (6.3)
	Scoring centered	493	260 (52.7)	150 (30.4)	156 (31.6)	176 (35.7)	37 (7.5)
	Net sport	479	270 (56.4)	123 (25.7)	168 (35.1)	159 (33.2)	44 (9.2)
	Regional sport	337	191 (56.7)	123 (36.5)	113 (33.5)	82 (24.3)	25 (7.4)
	Water & winter sport	416	241 (57.9)	85 (20.4)	150 (36.1)	136 (32.7)	43 (10.3)

Table 9. Why human rights issues cannot be improved (continued).

Total		N	Lack of supporting victim	Overlook of violence	Lack of expertise of supervisor	Unconcern of teammate	Others
		3,007	458 (15.2)	165 (5.5)	311 (10.3)	245 (8.1)	100 (3.3)
Gender	Male	1,551	211 (13.6)	73 (4.7)	201 (13.0)	116 (7.5)	64 (4.1)
	Female	1,456	247 (17.0)	92 (6.3)	110 (7.6)	129 (8.9)	36 (2.5)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91 (13.1)	30 (4.3)	80 (11.5)	57 (8.2)	33 (4.7)
	Measuring centered	586	83 (14.2)	39 (6.7)	74 (12.6)	61 (10.4)	13 (2.2)
	Scoring centered	493	83 (16.8)	26 (5.3)	42 (8.5)	36 (7.3)	20 (4.1)
	Net sport	479	86 (18.0)	23 (4.8)	40 (8.4)	34 (7.1)	11 (2.3)
	Regional sport	337	49 (14.5)	17 (5.0)	29 (8.6)	31 (9.2)	14 (4.2)
	Water & winter sport	416	66 (15.9)	30 (7.2)	46 (11.1)	26 (6.3)	9 (2.2)

3.2. 인권문제 해결 방안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사항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법 제재의 강화가 전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지원 강화가 4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 징계 및 법 제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권리지원 강화 방안은 남자선수보다 여자선수들의 응답비율이 더 높았으며,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전문성 및 대응역량 강화 등의 사항에서는 남자선수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법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수상 및 동계형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계측형이 53.9%, 점수형이 53.8%, 네트형 49.9%, 영역형 49.0%, 대련형 48.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점수형이 48.5%, 수상 및 동계형 45.0%, 계측형 44.4%, 대련형 및 네트형이 43.4%, 영역형이 40.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0 and 11).

Table 10. Urgent need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Total		N	Regular education for athletes and coaches	Enhancing expertise of supervising organizations	Obedy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law	Supporting victims' human right
		3,007	869 (28.9)	778 (25.9)	1552 (51.6)	1331 (44.3)
Gender	Male	1,551	491 (31.7)	459 (29.6)	746 (48.1)	650 (41.9)
	Female	1,456	378 (26.0)	319 (21.9)	806 (55.4)	681 (46.8)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210 (30.2)	191 (27.4)	337 (48.4)	302 (43.4)
	Measuring centered	586	139 (23.7)	167 (28.5)	316 (53.9)	260 (44.4)

Scoring centered	493	121 (24.5)	102 (20.7)	265 (53.8)	239 (48.5)
Net sport	479	164 (34.2)	120 (25.1)	239 (49.9)	208 (43.4)
Regional sport	337	123 (36.5)	81 (24.0)	165 (49.0)	135 (40.1)
Water & winter sport	416	112 (26.9)	117 (28.1)	230 (55.3)	187 (45.0)

Table 11. Urgent need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continued).

Total		N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supervising human right	Promoting public opinions	Reducing training lodge	Others
		3,007	325 (10.8)	542 (18.0)	541 (18.0)	76 (2.5)
Gender	Male	1,551	182 (11.7)	305 (19.7)	219 (14.1)	50 (3.2)
	Female	1,456	143 (9.8)	237 (16.3)	322 (22.1)	26 (1.8)
Types	Individual competition centered	696	84 (12.1)	123 (17.7)	120 (17.2)	25 (3.6)
	Measuring centered	586	68 (11.6)	109 (18.6)	101 (17.2)	12 (2.0)
	Scoring centered	493	48 (9.7)	88 (17.8)	110 (22.3)	13 (2.6)
	Net sport	479	44 (9.2)	86 (18.0)	88 (18.4)	9 (1.9)
	Regional sport	337	31 (9.2)	64 (19.0)	68 (20.2)	7 (2.1)
	Water & winter sport	416	50 (12.0)	72 (17.3)	54 (13.0)	10 (2.4)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한체육회 등록 실업팀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선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고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선수들은 폭력이 경기력 향상이나 팀워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감독 및 코치들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기력 향상과 팀워크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과 코치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감독과 코치들에게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스포츠과학 지원과 전문적 코칭 지식을 통해 신체적, 언어적 폭력 없이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역량 강화와 자질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스포츠 인권 정책의 제도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권 의식의 향상과 스포츠 인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중요하다 (Hong, 2011).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선수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계의 인권 문제가 일반대중에게 폭력이나 성폭력 등 부정적 측면으로만 각인되거나 운동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며 단기간의 처방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민의 긍정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인식개선 사업 및 문화 사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인권침해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인권존중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선수보호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결국,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인권보다 성적이나 실적이 강조되는 분위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 스포츠 인권 침해 시 대응 방안 부재, 진로에 대한 장애요인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Kang, 2015).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도자 절대권력 분배 및 역할 이행,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해결 선례 홍보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정책관련 담당자나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이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 인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스포츠 공동체 내부 간은 물론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정보소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인권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보, 피해신고 절차 및 방법, 대처 방안,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스포츠 조직과 기관의 역할과 감독, 관계법령 등에 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 선수,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별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위기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선수들이 외부세계와 차단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SNS 상의 정보소통 채널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스포츠인권 전문사이트나 SNS 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조성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Hong, E. (2011). Elite sport and nation-building in South Korea: South Korea as the dark horse in global elite spor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8(7), 977-989.
- Hong, D., & Yu, T. (2007). Student athletes in terms of human rights: An educational discours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4(4), 131-154.
- Hur, H. M. (2010). Measurement of human rights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national representative athletes. *Journal of Korean Sports Sociology*, 23(4), 145-161.
- Kang, S. (2015). A study on differences of career barriers,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velopment behavior among college athletes, sport-majored college students, and non-sport-majored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1), 83-95.
- Nam, B. H., Hong, D., Marshall, R. C., & Hong, J. H. (2018). Rethinking social activism regarding human rights for student-athletes in South Korea. *Sport in Society*, 21(11), 1831-1849.
- Nam, B. H., Love, A., & Lim, S. (2017) Tong-Gu Chung and the development of elite sport in South Korea: A biographical study. *Asia Pacific Journal of Sport and Social Science*, 6(3), 231-247.
- Nam, S. W., Lee, S. H., Yeo, J. K., Park, C. S. (2007).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xual harassment perceptions in sports. *Journal of the Korean Sports*, 46(4), 117-128.